http://dx.doi.org/10.14400/JDC.2015.13.1.543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이지하*, 심다연**, 양민옥***, 김혜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시간강사***, 신구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ieha Lee*, Da-Yeon Shim, Min-Ok Yang***, Hye-Sun Kim****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hin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남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4년제 대학생 638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허용도, 성행동,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예측 변인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동성애 혐오에는 성별, 성허용도,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행동과 조절변수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성애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과 더불어 그 가족 및 학내 구성원을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행동, 자아존중감, 동성애 혐오, 대학생, 성소수자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ssociated homophobia among 638 Korea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nationwide. Study outcome is homophobia and predictors include demographics, sexual permissiveness, sexual behavior, self-esteem,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gender, sexual permissiveness, self-este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omophobia although sexual behaviors were not.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factors affecting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ey Words: sexual behavior, self-esteem, homophobia, college students, sexual minority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3402)
Received 3 November 2014, Revised 5 Dec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Da-Yeon, Shim.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Email: yeonbeat@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가 '정신이상'이나 '성적일탈'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사회에서는 과거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편견은 사회에 만연하다.

동성애 혐오(Homophobia)라는 용어는 동성애 혐오증 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동성애자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태도나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1972년 조지 와인버그(George Weinberg)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과 함께 지낼 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동성애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는 동성애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동성애를 비난하는 태도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1].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란, 개개인의 의진에 따른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서 동성애는 정신장애나 행동장애의 범주에서 분리되어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II)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중신의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사회적 낙인과 편견,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성적으로 겪게 된다[2]

동성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국외연구에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동성애를 인간성애의 한 종류로 접근하는 경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3]. 과거에는 다수의 논문들이 동성애의 원인과 진단, 동성애자들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4]. 최근에는 동성애 혐오, 동성애 정체성 발달과 coming-out, HIV/AIDS,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 등의 주제로 다수의 문헌연구가 보고되고 있다[3].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문제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연구를 찾을 수 있다. [6] 이와 같이 동성애 혐오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많이 연구 영역 중 한가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동성애자들을 사회부적응자로 접근하던 관점에서 이성애 주도적인 환경이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5].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태도 및 동성애 혐오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거주지역, 정치적 성향, 수강과목, 종교적 성향 등의 변수들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의 집단에 비해, 대도시 보다는 농촌에서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종교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동성애 관련 수강 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10].

기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혐오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사회비교이론 중 Will의 하향비교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과 동성애 혐오를 관련성 있게 보았다[11,12]. 그러나 이후 Theodore and Basow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타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13].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변수로 성행동과 관련한 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홍콩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혐오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중에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 성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동성애 혐오의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14]. 또한, 해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해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험이 다양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5]가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 및 성위험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6,17]. 이와 같이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동성애 혐오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갖는 복합적인 역동

을 고려하면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동성애 혐오를 예측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성별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동성애 혐오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애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6,18,19,20]. 그러나 성별이 동성애 혐오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동성애 혐오 예측변인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생들의 성행동과 동성애 혐오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가? 한국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여서 대학생들의 성행동과 동성애 혐오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성행동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력에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러한 조절효과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대학 내 구성원에게 동성애 관련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청년기 대학생의 건강위험행동”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청년기 대학생의 건강위험행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음주, 위험 성행동 등의 건강위험행동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전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도록 한 것이며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여 전국 35개 대학의 대학생 총 638명의 설문이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나 음주, 성행동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의 표본을 수집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성행동이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에서 동성애 혐오, 성행동, 자아존중감 변인과 성별, 연령, 전공, 학교의 소재지, 음란물 시청 여부, 성관계 경험의 여부 및 성허용도 등을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종속변수: 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rsen, Reed Hoffman(1980)의 HATA(Heterosexual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Scale)을 장재홍 외(2003)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동성애자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문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 척도의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채점은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문항(1, 2, 7, 8, 9, 10, 11, 12, 16, 19번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전체 20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 혐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46으로 나타났다.

2.2.2 독립변수: 성행동

이석재(1999)의 연구[22]에서 Zuckerman(1973)의 연구[22]를 참조하여 개발한 성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척도는 적극적 성행위 11문항, 탐색적 성행위 8문항, 상상적 성행위 4문항, 성행위 모방 2문항, 음란물 관람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의 점수는 이석재(1999)의 연구[22]에서는 ‘전혀 없었다’ 1점, ‘1회에서 5회’ 2점, ‘6회에서 10회’ 3점, ‘10회 이상’ 4점을 부여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응답의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측정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이석재(2001)의 후속연구[24]에서는 측정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6점 기준

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혀 없었다' 1점, '1회에서 2회' 2점, '3회에서 5회' 3점, '6회에서 8회' 4점, '9회에서 10회' 5점, '11회 이상' 6점을 부여하여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채점은 각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하여 하위척도 별 총점을 산출하고 전체 27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 척도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27점부터 16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 관련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55로 나타났다.

2.2.3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2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채점은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3, 5, 8, 9, 10번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전체 10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859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학교의 소재지를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 음란물 시청의 여부, 성경험의 여부와 성허용도를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으로 여성은 '1'로 값을 부여하였다. 학교의 소재지는 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에 있는 경우 '0'으로 서울 외의 지역은 '1'로 값을 부여하였다. 음란물 시청 여부는 한 번도 시청해보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으면 '1'로 값을 부여하였으며 성경험 여부도 성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우 '0'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1'값을 부여하였다.

성허용도는 박희성(1995)[26]의 연구에서Sprecher(1988)[2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혼전 성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관계의 발전 단계에 따른 신체적 접촉 수준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즉, 관계의 발전 단계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 등의 4단계로, 신체적 접촉수준은 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 등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라면 키스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척도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발전 단계 별로 성교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성허용도 점수를 측정하였다. 즉, 관계 발전의 1단계는"남성이라면 특별한 감정이 있는 사이에 성교를 허용할 수 있다"이며, 2단계는 "남성이라면 좋아하는 사이에 성교를 허용할 수 있다" 이며, 3단계는 "남성이라면 사랑하는 사이에 성교를 허용할 수 있다", 4단계 "남성이라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성교를 허용할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경우도 같은 4단계 4문항을 선별하여 총 8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한 것이다. 전체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75였고, 선별된 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06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혐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다중공선성과 추정치 왜곡으로 인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중심화(centering)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전공, 학교의 소재지, 음란물 시청 경험의 여부, 성관계 경험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1.8%, 여학생이 67.9%이며, 연령별 분포는 20~24세가 73%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19%, 25~29세 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사회계열이 44.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문계열 19.3%, 교육 10.5%, 예체능 10.3% 자연계열 7.5%, 공학계열 6.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40.3%, 지방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55.0%로 지방 대학 재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지방대 학생 중 경기도 학생이 11%, 경상도 학생이 6.0%, 강원도 학생은 8.8%, 전라도 학생이 60.7%, 충청도 학생이 13.4%로 전라도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음란물의 시청 경험 여부는 72.1%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음란물을 시청해본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의 여부는 예 40.0%, 아니오 59.2%로, 성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학생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이 더 많았다.

〈Table 1〉 Selecte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llege students (n=638)

		N	Percentages
Gender	Male	203	31.8
	Female	433	67.9
	Missing	2	.3
Age	16-19	121	19.0
	20-24	466	73.0
	25-29	39	6.1
	Over 30	5	.8
	Missing	7	1.1
Major	Engineering	44	6.9
	Humanity	123	19.3
	Social Science	285	44.7
	Art/Music/Physical eduction	66	10.3
	Science	48	7.5
	Education	67	10.5
	Missing	5	.8
Location of university	Seoul	257	40.3
	Non-Seoul	351	55.0
	Missing	30	4.7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Yes	460	72.1
	No	171	26.8
	Missing	7	1.1
Sexual experience	Yes	255	40.0
	No	378	59.2
	Missing	5	.8

3.2 주요 변수의 특성

3.2.1 동성애 혐오, 성행동, 자아존중감, 성허용도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동성애 혐오는 최소 1.00에서 최대 5.00이며, 평균은 2.59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했던 장재홍(2003)의 연구[21]에서 남학생 3.30, 여학생 2.93으로 나타났던 수치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성행동은 최소 1.00부터 최대 6.00이며, 평균은 1.8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석재(2001)의 연구[23]에서 문항별로 .48~1.86의 분포를 보였던 결과와 비교하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행동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지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은 2.98로 김민경(2012)의 연구[28] 3.46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혐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동성애 혐오는 <Table 2>와 같다. 성별, 연령, 학교의 소재지, 음란물 시청 경험의 유무, 성관계 경험의 유무, 성허용도에 따른 동성애 혐오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성허용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남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허용도는 전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인 집단과 평균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에 대해 허용적인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동성애 혐오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s of homophobia, by selected characteristics

		Homophobia		t/F
		Means	SD	
Gender	Male	2.76	.87	t=.3655***
	Female	2.51	.80	
Age	16-19	2.46	.69	F=1.355
	20-24	2.60	.85	
	25-29	2.71	.95	
	Over 30	2.81	1.06	
Location of school	Seoul	2.52	.82	t=-1.725
	Non-seoul	2.64	.84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Yes	2.58	.74	t=-.074
	No	2.58	.85	
Sexual experiences	Yes	2.57	.85	t=-.362
	No	2.60	.81	
Sexual permissiveness	Low	2.80	.79	t=5.171***
	High	2.45	.83	

*p<.05, **p<.01, ***p<.001

3.2.3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성별, 연령, 학교 소재지, 음란물 시청의 경험 여부, 성관계 경험 여부, 성허용도를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15.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11.615, p<.001). 성별(β=-.198, p<.001), 연령(β=.096, p<.05), 성허용도(β=-.282, p<.001), 자아존중감(B=.216, p<.0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β=-.109,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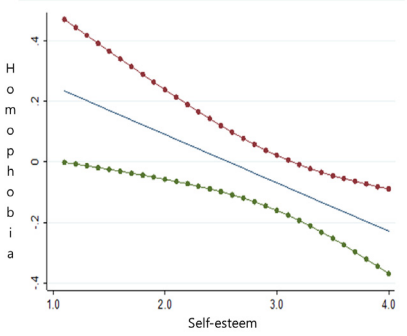
[Fig. 1]은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운데의 직선은 자아존중감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변화를 보여주며, 직선의 위쪽과 아래쪽의 점선은 자아존중감 변화에 따른 성행동 한계효과의 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ssessing factors associated with homophobia

Outcomes: Homophobia	B	β	t
Gender(male=0)	-.350	-.198	-4.557***
Age	.154	.096	2.368*
Location of school (Seoul=0)	.123	.073	1.863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no=0)	.072	.038	.956
Sexual experience (no=0)	.094	.056	1.090
Sexual permissiveness	-.295	-.282	-6.196***
Sexual behavior	-.069	-.086	-1.497
Self-esteem	.216	.129	3.309**
Interaction term (sexual behavior*self-esteem)	-.160	-.109	-2.798**
Constant	2.596		
R^2	.151		
Adjusted R^2	.138		
$\triangle R^2$	.011		
F	11.615***		
Durbin Watson = 1.814			

*p<.05, **p<.01, ***p<.001

그림에 나타난 결과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성행동 한계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의 한계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구간과 0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구간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라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며, 0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은 그러한 한계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Marginal effect of sexual behavior on homophobia

[Fig. 1] 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대략 3.0 이하인 구간에서는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의 한계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3.0 이상이 구간에서는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의 한계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성행동은 동성애 혐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3.0 이상인 경우 성행동의 한계효과는 음(-)의 한계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행동이 빈번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4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차이

성행동이 동성에 혐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의 성별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Gender specific multi-variate analyses assessing factors associated with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Outcome: Homophobia	Male			Female		
	B	β	t	B	β	t
Age	.132	.086	1.257	.194	.115	2.312*
Location of school (Seoul=0)	.182	.106	1.525	.107	.064	1.331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no=0)	.187	.073	1.069	.085	.050	1.011
Sexual experience (no=0)	.109	.061	.721	.099	.057	.938
Sexual permissiveness	-.162	-.155	-1.980*	-.374	-.349	-6.409***
Sexual behavior	-.104	-.141	-1.549	-.057	-.055	-.843
Self-esteem	.600	.363	4.606***	.102	.062	1.206
Interaction term (sexual behavior * self-esteem)	-.364	-.330	-4.275***	-.070	-.037	-.722
Constant	1.072			2.670		
R^2	.187			.145		
Adjusted R^2	.152			.127		
$\triangle R^2$	.080			.001		
F	5.313***			8.308***		
Durbin Watson	1.737			1.827		

*p<.05, **p<.01, ***p<.001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18.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5.313, p<.001). 성허용도(β=-.155, p<.05), 자아존중감(B=.363,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β=-.330,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14.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8.308, p<.001). 연령(β=.115, p<.05)과 성허용도(β=-.349,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이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여학생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함의

4.1 결론

본 연구는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동성애 혐오의 현실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입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자 4년제 대학생 638명에 대한 동성애 혐오의 평균은 2.59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2.76) 여학생보다(2.51) 동성애 혐오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동성애 혐오가 높다는 결과와는 일관된 형태를 보인다. 2003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를 조사한 장재홍(2003)의 연구[21]에서는 남학생 3.30, 여학생 2.93으로 나타났다.

성허용도에 따라서는 동성애 혐오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허용도 점수는 2.47점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인 집단과 평균 이하인 집단으로 나누어 동성애 혐오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허용도가 낮은 집단이(2.80) 성허용도가 높은 집단(2.45)에 비해 동성애 혐오 점수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성허용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수 성행동과 조절변수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에 따른 성행동이 동성에 혐오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3.0보다 높고 성행동이 빈번할수록 동성애 혐오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성에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성에 혐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행동이 빈번할수록 동성애 혐오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허용도가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에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동성에 혐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행동, 자아존중감,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동성애 혐오의 현 주소와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혐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논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행동이 빈번할수록 동성애 혐오의 정도가 낮아지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성경험이 없는 경우 동성애 혐오의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되었으나[17] 본 연구결과는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행동이 빈번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동성애 혐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성행동은 동성애 혐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자아존중감과 성행동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까지 확대,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결과를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남학생의 동성애 혐오 수준은 여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동성애 혐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동성애 혐오의 주요 변수임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변인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성허용도가 낮을수록, 즉,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동성애 혐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이나 성행동은 남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허용도가 동성애 혐오의 주요 변인임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관적인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6],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개개인을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구성원을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파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29]. 이들은 사회적 권위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반친화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동성애자들과 같이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에 상반하는 집단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는 대학생들의 성에대한 태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대학생들의 성행태와 관련한 지식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애 혐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과 성행동을 고려한 접근 방안과 여학생에게는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접근은 학생, 교수 및 교직원과 같은 대학 내 구성원들은 동성애와 같은 이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에 대학 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은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개발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 제한점

본 연구는 첫째,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인터넷 서베이 방식을 통해 일부 대학의 재학생만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학력 및 연령 등이 다른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 정도는 개인의 다양한 정서와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여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13]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혐오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문화와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과 문화적 차이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동성애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여 정확한 경로 과정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인 접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8023 402).

REFERENCES

[1] C. Y. Han, What would be the substantial thing between homosexuality and homophobia.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30, pp. 15-38, 2013.

[2] Roberts AL, Austin SB, Corliss HL, Vandermorris AK, Koenen KC, Pervasive trauma exposure among US sexual orientation minority adults and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 12, pp. 2433 - 2441, 2010.

[3] Philips, J. C., Ingram, K. M., Smith, N. G., & Mindes, E. J.,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31, No. 1, pp. 25-62, 2003.

[4] Buhrke, R. A., Ben-Ezra, L. A., Herley, M. E., & Ruprecht, L. J., Content analysis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articles concerning lesbian and gay male issues in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9, pp. 91-99, 1992.

[5] Waldo, C. R., Working in a majority context: A structural model of heterosexism as minority stres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6, pp. 218-232, 1999.

[6] Y. S. Seo, J. L. Lee, & J. H. Cha,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cultural valu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homophobi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8, No. 1, pp. 177-199, 2006.

[7] Herek, G. M., The context of anti-gay violence: notes on cultural psychological hetero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5, No. 1, pp. 16-33, 1990.

[8] Kerns, J., & Fine, M.,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 do gender role attitudes mediate this relation?. Sex Roles, Vol. 31, No. 5/6, pp. 297-307, 1994.

[9] B. J. Lee,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 me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2, No. 2, pp. 1-19, 2006.

[10] Wills, G., & Siegel, K.,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in Shareveport Bossier City, Lousiana.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38, No. 3, pp. 97-116, 2000.

[11] Holtzen, D. W., & Agresti, A. A., Parental responses to gay and lesbian children: Differences in homophobia, self-esteem, and sex-role stereotyp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9, pp. 390-399, 1990.

[12] Wells, J. W., What makes a difference? Various teaching strategies to reduce homophobia in university students. Annals of Sex Research, Vol. 4, pp. 229-238, 1991.

[13] Theodore, P. S., & Basow, S. A., Heterosexual masculinity and homophobia: a reaction to the self.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40, No. 2, pp. 31-48, 2000.

[14] Hally, C. R., & Pollack, R., The effects of self-esteem, variety of sexual experience, and erotophilia on sexual satisfaction in sexually active heterosexual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Vol. 19, pp. 183-192, 1993.

[15] Hollar, D. S., & Snizek, W. E., The influences of knowledge of HIV/AIDS and self-esteem on the sexual practices of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24, pp. 75-86, 1996.

[16] Cole, F. L., & Slocumb, E. M., Factors influencing safer sexual behaviors in heterosexual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 collegiate males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27, pp. 217-222, 1985.

[17] Kan, R. W. M., Au, K. P., Chan, W. K., Cheung, L. W. M., Lam, C. Y. Y., Liu, H. H. W., Ng, L. Y., Wong, M. Y., & Wong, W. C., Homophobia in medical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ex Education, Vol. 9, No. 1, pp. 65-80, 2009.

[18] S. J. Park, A Study on teenagers' fanfic culture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 Focusing on middle school girls. MSW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3.

[19] Herek, G. M.,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9, pp. 563-577, 1986.

[20] Gannon, L., Homophobia in academia: Examination and critique. In L. Pardie, & T. Luchetta(Eds.), The construction of attitudes toward lesbians, gays and bisexuals(pp.43-63). New York: Haworth Press, 1999.

[21] J. H. Jan, S. H. Ji, Y. S. Lee, J. M. Park, J. Y. Lee, & S. H. Park, Analysis of idea and current status about homosexuality among adolescents. Youth Counseling Welfare Research Report, Vol. 2003, pp. 24-49, 2003.

[22] S. J. Lee,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The Kore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3, No. 2, pp. 131-148, 1999.

[23] Zuckerman, M., Scales for sexual experience for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1, pp. 27-29, 1973.

[24] S. J. Lee,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 1, pp. 97-116, 2001.

[25]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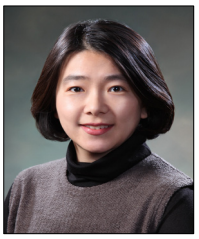
[26] H. S. Park, J. S. Lee, C. A. Park, & M. J. Jeoung,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3, No. 6, pp. 11-23, 1995.

[27] Sprecher, S., McKinney, K., Walsh, R., & Anderson, C. A., Revision of the reis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0, pp. 821-828, 1988.

[28] M. K. Kim, A study on parents' alcohol use, university students' alcohol expectancy, and alcohol use disorder: Mediating effect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10, No. 3, pp. 61-80, 2012.

[29] K. H. Min,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social prejudi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4, No. 2, pp. 146-168, 1989.

이 지 하(Lee, Jieha)



- 2008년 5월 : PhD fro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여성복지
- E-Mail : jieha.lee@ssu.ac.kr

심 다 연(Shim, Da Yeon)

- 2012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청소년, 가족복지
- E-Mail : yeonbeat@naver.com.

김 혜 선(Kim, Hye Sun)

- 2011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 E-Mail : hyesun37@shingu.ac..kr

양 민 옥(Yang, Min Ok)

- 2012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 관심분야 : 가족복지, 해결중심
- E-Mail : rainlove69@hanmail.net